

장애여성의 이야기, 울려 퍼져라!

✓ 장애여성의 일상을 울린다

우리가 강의실에 가기 위해 오르는 계단, 눈으로만 읽을 수 있는 수업 교재, 여담이로 된 출입문은 당연하다고 여기고 지나치기 쉬운 일상적인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상은 장애를 고려하지 않고 구성된 것입니다. 학내의 비장애중심적 분위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분리하여 누군가를 정상으로, 누군가를 비정상으로 만듭니다.

이렇게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는 사회와 학내 문화에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현 사회는 정상이 아닌, 그래서 중심에 있지 않은 사람 모두에게 차별을 만들어냅니다. 누구의 시각으로 정상과 비정상이 나뉘며, 이 기준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물어야 하는 것이지요. 누군가를 배제하고 차별하는 것이 당연해지는 관계맺음, 바로 그 권력관계를 고민하고, 정상성의 권력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일상, 울림>은 학내의 정상성에 균열을 내기 위해 장애여성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사회에 존재하는 남성중심성과 비장애중심성은 장애여성을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존재로 만들어 왔습니다. 장애여성은 비장애중심적인 공간에 끊임없이 적응하고 자신의 장애를 극복하도록 강요됩니다. 장애여성은 무성적인 존재라는 인식 하에서 섹슈얼리티를 부정당하다가도, 한편으로는 저항하지 않는 상대로 여겨져 반복되는 성폭력의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모든 일상이 장애여성의 몸과 경험을 고려하지 않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장애여성은 '보호받아야 할 존재'로만 인식되어 자신의 삶의 방식을 결정할 권리를 박탈당합니다. 한편으로는 스스로 느끼는 모든 불편함을 참으며 자신을 위해 '희생하는' 다른 이들을 끊임없이 배려하는 감정노동을 해야 하기도 하지요.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여성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할 수 없게 됩니다. 장애여성의 일상을 이야기함으로써, 그 속에 감춰져있는 무수히 많은 권력관계들을 드러내고, 그 권력관계를 기반으로 가해지는 억압에 균열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 '장애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정영란

우리 사회는 결혼을 하지 않은 여성이, 거기에 장애도 가진 여성들이 살아가기란 무척 힘든 사회다.

내가 살고 있는 집에는 장애여성 셋이 4년 전부터 동거를 하고 있다. 모두 뒤늦게 부모님 곁을 떠나 홀로 서고자 독립을 한 장애여성들이다. 세상이란 장애를 가진 여성들이 살아가기에 만만하지 않았다. 장애여성들만이 사는 공간이라서 주위의 시선이 주목되어졌다. 그리고 못 남성들로부터 호기심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우리 집 욕실에 창문이 하나 있다. 반지하 집이라서 담도 낮고 창문도 낮다. 더운 여름 가끔 밤늦게 샤워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몇 번은 남성들로부터 창문을 엿보이는 추행을 당한 일이 있었다(경찰서에 신고를 했지만, 경찰이 올썰면 치한은 도망을 가고 없었다). 이런 일이 몇 번 있은 후, 우리 집엔 무인경보시스템이 설치되었다. 경찰서에서 우리 집을 추천해 무인경보시스템사에서 무료로 경보기를 설치해준 것이다.

장애여성들은 잘못된 사회제도 속에서도 살아가기도 힘든데, 남성들로부터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다. 이것은 장애여성들뿐만 아니라 비장애여성들도 마찬가지다. 여성이라면 누구나 겪는 공통적인 어려움일 것이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생활보호 대상자)가 되기 위한 모든 조건들에 있어서도 장애여성들은 장애남성들에게 우선권을 빼앗기고 있다. 모든 조건들이 남성들(가(家)장)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선적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가장이어야 하고, 나이가 많아야 하고 독신 남성, 다음이 독신 여성이었다.

난 모든 조건에 해당이 되지 않았다. 그 때만 해도 부모님이 조그마한 집이 한 채 있었고, 수입이 있었다. 그리고 내 나이가 30대 초반이었다. 그래서 난 직업도 없었지만, 모든 조건에 해당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었다. 지금은 지난 해 11월부터 재택근무를 시작했다. 비록 적은 수입이지만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다. 장애여성이 직업을 갖는데 있어서도 남성과 여성의 차별이 있다. 취업에 있어서 장애인을 고용하는데 의무고용2%로의 제도가 있다. 그런데 그 2%로에도 장애여성은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장애여성들은 대부분이 집에서 재택근무로 전화비서를 하고 있다.(언어 장애가 없는 장애여성들) 집에서 하는 일이라 모든 조건들이 열악하다. 근무시간(하루 8시간인데, 10시간 이상 하는 곳도 있음)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고, 근무시간에 비해 급여도 매우 적다. 그리고 어떤 곳은 공휴일과 명절 휴가도 없는 경우도 있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는 장애여성들, 하지만 이런 일조차도 하지 못하는 장애여성들이 많다.

이 글은 장애여성 공감 잡지 5호,
「장애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 장애여성과 검정고시

박순천

남들은 이 나이면 사회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잡아가고 있겠지만, 난 늦은 배움의 길을 가고 있다. 이것은 자랑도 아니고 부끄러움도 아니다. 내가 당연히 누렸어야 할 나의 잃어버린 권리를 찾아가는 것일 뿐이다. 언제부터 배움의 욕구를 가지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다. 그저 의식하지 못 했었고, 원망도 없이 그저 받아들일 뿐이었다.

어릴 적 동갑내기 사촌이 책가방과 학용품을 샀다고 자랑하던 기억... 그리고 너도 다리가 다 나으면 학교에 다닐 수 있다는 어른들의 말씀. 자라면서 친구들과 어울리며 느끼던 경험의 차이. 학교라는 울타리 밖에 서 있는 나의 모습에 대한 의식은 나는 다르다는 생각의 시작이었다. 그렇게 나의 자각심은 자라왔다.

난 그저 안 배워도 똑똑한 아이일 뿐이었다. 어떤 의미의 똑똑함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늘 나의 가슴을 답답하게 했다. 멈추어져 있는 듯한 의식에 대한 서러움이었을까? 인정될 수 없는 무지함, 그것은 내 자아를 키워갈 수 없게 하는 또 하나의 장애였다.

(중략)

그렇지만 학교 통학을 위한 매일 매일의 이동 자체가 어려운 많은 중증 장애인들은 교육의 바깥에 머무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당연시되고 있다. 장애여성의 교육에서 또한 중요한 것은 여성으로서 처한 어려운 조건들이다. 장애여성은 절대 보호 속에 머물러야 한다는 인식이 일반적이고, 장애여성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제성이나 전문성도 기대하지 않는다. 어쩌다 교육의 기회를 얻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큰 특혜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남성 중심의 사회 속에서 장애여성은 교육으로부터 더욱 밀려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안고 있다.

이렇게 사회나 국가의 아무런 지원 없는 무관심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장애여성은 한정된 공간에서 성인여성으로서의 성숙됨을 갖지 못하며 소녀로서만 남게 된다. 그리고 그 안에서만이라도 자신의 역할을 찾을 수밖에 없는 장애여성은 집안살림 내지는 아기 돌보기의 한 몫을 맡게 되고, 그렇게 가정에 얽매어 버리는 것이다.

(중략)

매우 드문 일이지만 이 모든 과정을 다 마친다 하더라도 대학이란 문은 너무도 높고 그것을 통과하는 길은 험난하다. 많은 경우, 원서 접수에서 멈추고 만다. 중증 장애인일수록 편의 시설이 안 되어 있는 학교 내에서의 생활이 어렵다. 그런 사람은 통학을 위해 함께 움직여 줄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해서 그녀들은 스스로 포기해 갈 수밖에 없다. 이처럼 스스로 교육의 길을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러한 의지를 지원해 주지 못하는 현실이 그녀들을 약하고 무능하게 만들어 가고 있다.

(중략)

사실, 검정고시를 무사히 마친다 하더라도 이 사회 속에서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들은 이 길을 갈 수밖에 없으며, 이 속에서 찾아야 한다. 출세나 성공이 아닌 내 자아를 위해.....

배움이라는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구이며 그 기회 또한 공평하게 주어져야 하는 것인데, 왜 장애 여성들은 스스로 찾을 수밖에 없고, 그 권리를 당당히 요구할 곳이 없을까?

이 글은 장애여성 공감 잡지 2호,
「장애여성'과 검정고시」에서 발췌한 글입니다.